

# 전북 식품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 전북자치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개사 선정... 지원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식품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2026년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 킷오프 회의를 열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장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억 원 규모로, 업력

7년 미만의 식품 분야 창업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성장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기업은 성장 진단을 거쳐 투자유치형과 매출성장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투자유치형 기업에는 IR 자료 제작과 시제품(MVP) 개발, 공정 개선, 민간 투자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전문가 매

칭 등이 지원된다. 매출성장형 기업에는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 개척과 제품 고도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협약 기간 내 도내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분사나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전략적 지원에 의미가 있다"며 "참여 기업들이 투자유치와 매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은 약 1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고 일부는 정부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오상근 기자

#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환영... 남원 설립 촉구”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조속 추진 촉구...의료 인프라 확충 기대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국립의전원 대학원 설립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전북 남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오

랜 기간 논의와 지연을 거듭해 온 국립의전원 설립이 국가적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지역 경제계와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상공인들은 그동안 전북, 특히 남원

지역이 서남해 폐교 이후 의료 인프라 부족과 전문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안 통가를 계기로 의료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 기반이 마련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충을 통해 기업 활동 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상공인들은 "국립의전원대학원이 남원에 설립돼 지역사회와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상공인과 도민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 전북자치도·전문건설협회 대형 건설사 대상 현장 홍보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 활동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신종합건설과 보광종합건설 본사를 방문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대형 건설사업에서 도내 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 전북환경청, 새만금에 '그린 카본' 저장 기반 구축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대규모 묘목 식재에 나서며 '그린 카본' 저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식재가 이뤄진 생태단지는 간척지 특성상 염분이 높고 해풍이 강해 식물 생육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에 따

환경청은 지난 24일 산림청과 협력해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 묘목 1만 3천 주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지원하고, 환경청이 식재 부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라 황칠나무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오리나무 등 염분과 비파에 강한 수종이 선별됐다.

묘목은 우선 단지 내 야외 묘포장에서 일정 기간 적응 과정을 거친 뒤, 생육 상태가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적합한 지역에 옮겨 심어 생태숲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약 78헥타르 규모의 생태단지를 탄소 흡수와 저장 기능을 갖춘 '그린 카본'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순환경생태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식재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고창 수박시험장 찾아 현장 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전북 고창 수박시험장을 찾아 농업인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에서 이 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농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교육생 및 관



계자들과 함께 '비료 적정 시비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맞춤형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품수박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 시험장 관계자와 강사진에 감사사를

# '전북생생장터' 특별 할인 기획전

### 5월 가정의 달 맞아 5월 14일까지 최대 25% 할인 행사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전북생생장터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특별 할인 기획전을 연다.

수산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 선물과 식재료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생산자는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중심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불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가와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용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전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 20%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1인당 3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매당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해가람 안심인증 수산물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는 25% 할인쿠폰이 각각 제공돼 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행사는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생생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은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오상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2026년 제3차 미국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 중소기업 10개사 참여 '미국 무역사절단' 성과

###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북미시장 진출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한 미국 무역사절단이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이행 사절단에는 유지처와 건강식품, 김치 등 식품기업 6곳과 화장품 기업 3곳, 생활소비재 기업 1곳이 참여해 전북 지역 특화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2026년 제3차 미국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에는 식품과 화장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과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행 사절단에는 유지처와 건강식품, 김치 등 식품기업 6곳과 화장품 기업 3곳, 생활소비재 기업 1곳이 참여해 전북 지역 특화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사절단은 미국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소비시장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동시에 공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 기업들은 각각 4월 21일 로스앤젤레스, 23일 뉴욕에서 열린 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직접 소개했다. 그 결과 총 199건의 수출 상담이 이

행사를 사전간담회를 통해 참가 기업의 상담 준비를 지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과 매칭, 특역, 이동 지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